



마스크 벗고 활짝 웃는 아이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충남도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장난치며 놀고 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2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조치에 대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2, 10면> /도정신문팀

제2서해대교 '민자고속도' 로 건설

도,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추진
국토부 적격성 통과 시 사업자선정
2033년 완공 3조 6000억 투입

당진~평택 해저터널 제2서해대교 기능
교통정체 해소, 수도권과 교통 연계
베이벨리 메가시티 핵심 교통축 기대

서해대교 기능을 분담하고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이 될 '제2서해대교' 건설이 민간투
자 형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 건설의 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해 대정
부 건의 활동 등 대응에 나선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2033년까지 사업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전체 구간은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JCT)에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평
택~과주고속도로 남광명분기점을 연결하는

61.4km로 도내 구간은 9km이다.

구간에는 제2서해대교 기능을 할 당진~평택
해저터널(6945m)이 포함됐으며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해대교는 교통량 포화 상태로 주말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서해대교 1일 평균 통행량(2020년 기준)은 8만
9329대이며, 주말 출·퇴근 시간대 서해대교 통과
시 1~2시간이 소요된다.

서해대교는 2015년 12월 교량 케이블 화재로
16일간, 2006년 10월 29중 추돌사고 발생으로 1
일 동안 차량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교통 분산을 통한 서
해대교 교통정체 완화, 서해대교 통행 제한 시
대체 경로 활용, 당진~아산 고속도로 연계, 수도
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 등이 기대
된다.

아울러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
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
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
가시티로 육성하는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
자 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용역 기간 중인 2021년

7월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며 표면화
됐다.

현재 국토부가 기재부에 당진~광명 민자고속
도로 적격성조사를 의뢰, 진행 중이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11월 21일 도내
국토교통 분야 현안 논의를 위해 도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민자고속
도로 적격성조사를 요청하며 신속 추진된 것
이다.

최근 국토부는 충청권과 가진 지역발전 협
력회의에서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
표했다.

도는 적격성조사 조속 통과를 위해 경기도, 당
진시와 공동 협력하고 대정부 건의를 지속할 계
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
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충남의 새로
운 고속도로 축을 통해 서해안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격성 조사 통과 및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
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관련 3면>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난방비 긴급지원	2면
격동의 충남 100년 문화 달력	8면 11면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도의원 인터뷰 '동행'	15면



민선8기충남도정



“난방비 지원 누락되는 도민 없도록”

온열의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재해구호기금 76억 추가 투입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대책 안내

충남도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난방비 상승과 관련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등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보건복지부 통계만 가지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원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도는 한파 관련 난방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7억 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방풍시설 설치 등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한다.

매달 38만 7000원 씩 5개월 간 지원 중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에는 109억 원을 투입 중이다.

또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추가 투입해 한파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은 1곳 당 20만 원 씩, 총 4600여 곳에 9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6만 6000여 가구에는 가구 당 10만 원 씩 총 66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한파 취약 3만 2829개 노인 가구에 생활지원사 2034명이 가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발표와 관련해서는 신청 및 사용 독려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에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각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48
/자연재난과 041-635-3251

노인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일자리 수 전년 대비 3163개 ↑
통합지원센터서 일자리 보급

충남도는 노후 소득 지원,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120억 원 증가한 1609억 원이며, 일자리 수는 4만 2497개로 지난해보다 3163개 늘었다.

일자리 유형은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성격의 공익활동형 3만 4808개 ▲지역사회 돌봄 및 공공시설 안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4618개 ▲소규모 매장 운영 및 전문 사업단 공동 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2248개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업알선

형 823개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보전 성격이 강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전년보다 2400개 이상 확대해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참여 기회를 늘렸다.

아울러 도는 올해 상반기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일자리 수행기관과의 관계망 형성, 구직 희망 노인의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노인의 욕구 등을 분석해 지역 특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 보급 등 노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26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4만 5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보호과 041-635-4215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켜온 충남도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1월 30일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즐거워하고 있다.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편함을 견디며 방역수칙을 묵묵히 지켜온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정신문팀

한부모가족 대상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완화 월 최대 35만원
충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양육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58%까지 지원했던 것을 60%로 확대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아동 교육

지원비는 1인당 연 8만 3000원에서 1만 원 인상을 연 9만 3000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족 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한다.

아울러 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자녀 학습 보조비를 지원 중이며, 타 시도와 별개로 올해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5

마스크 자율화...착용 시설 확인하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전환
병원·약국·요양시설은 의무 유지

충남도는 1월 30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

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main.do)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이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61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충남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만 800원)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이다.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수혜자 발굴과 지원 사업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5

충남, 난방 취약계층 집중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단 한 명도, 누락되는 도민 없도록!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총 76억 원 추가 투입
충남, 난방 취약계층 집중 지원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충청남도

정부지원대책도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인상
1인가구 15만원 → 30만원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

사회적배려대상 가스 요금 할인폭 2배 확대
월 9~3만 6천 원 → 1만 8~7만 2천 원

지원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꼭 살펴주세요!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 교통망 아산만 순환철도 본격화

아산만 순환철도 타당성 용역
천안-아산-당진-평택 103.7km 노선
아산만 지역 발전 잠재력 무궁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가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조성된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키워드다.

아산만 일대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어 인적·물적 인프라가 풍부하다.

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대규모 프로젝트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이 될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에 나섰다.

충남·경기 협약 협력사업 구체화

베이밸리 메가시티(아산만 일대 초광역 생활·경제권) 건설을 위한 주요 사업은 ▲아산만(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충남·경기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당진·평택항 물류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등 11개 사업(충남·경기 공동 사업 9개, 자체사업 2개)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이어 실무조직인 베이밸리 민관합동추진단을 꾸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주요 도정을 적극 알렸다.

또한 12월 14일 베이밸리 민관합동추진단, 자문위원회, 충남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천안 종축장,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평택·당진항, 평택 고덕 일 반산업단지 등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김영석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은 "현장에 답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주요사업

- 1 아산만(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 2 충남·경기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 3 당진·평택항 물류환경개선과대중국수출 전진기지육성
- 4 충남·경기 해안지역 국제적 관광지 (k-골드코스트) 조성
- 5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 6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 7 서해안권 마린 거점 공동 육성
- 8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 9 충남경제자유구역청 복원과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자체사업)
- 10 충남 서북부권 용수 확보방안 마련(자체사업)
- 11 충남·경기 현안사항 및 중장기 발전방향 공동 연구

이 있다. 산업, 경제, SOC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첨단산업 및 공간설계 전문가들과의 현장 기반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입주 기업 지원책 모색은 물론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총력'

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핵심 철도 교통망이 될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을 본

격화하기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1월 3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회의실에서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아산만 순환철도는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과 경기도 평택 일원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103.7km 규모로, 오는 2035년까지 9618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노선이 역내 철도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의 수도권 첨단 기업 유치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핵심 교통망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할 전망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아산만 순환철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찾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업 실현 방안을 모색해 국토교통부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아갈 방침이다.

제조업 최대집적지+교통 요지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건설되는 아산만 일대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조 원에 달한다.

또한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엘지(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다.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만 일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 등 전기·전자 분야 세계적인 생산집적지이다.

아산만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아산만권은 충남 북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토 공간상으로 보면 경부축, 서해안축, 중부동서축 등 세 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홍원표 책임연구원은 "아산만권은 수도권의 초광역대도시의 복사력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치"라며 "경부축을 따라 대구, 부산에 이르고 서해안축을 따라 충남 남부, 새만금, 목포에 이를 수 있고, 중부동서축을 따라 청주, 충주, 울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개발전략과 041-635-4731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92
자료제공/열린충남

올 겨울엔 온실가스를 끄고 OFF

탄소중립을 쫓아요!

18~20°C

충청남도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기후·환경네트워크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해요!

우리나라 등록된 자동차 중 자가용이 약 92.4% 차지
국내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 10% 참가하면
56,677,692 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

전력소비량이 큰 전기밥솥 보온시간 줄여요!

전기 밥솥의 보온기능으로 다른 가전제품 보다 전력 소비량이 커요.
가구당 전기밥솥 연간 소비량 957.8KW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충청권 시도지사·의장 8자 협약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선도
내년 설립 목표 계획 수립 등 추진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1월 31일 열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에서 김태홍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맹철영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론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

과제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의 통해 발굴·추진한다.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 선도모형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과 041-635-4717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에 성윤아 씨

“여성 발전과 권익 향상에 힘쓸 것”

제40대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성윤아(사진) 씨가 선출됐다.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2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연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성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흥성 출신으로, 한국여성

유권자충남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부회장은 대한어머니회충남연합회장 강임금 씨, 감사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도지회장 윤금순 씨가 선출됐고 총무는 한국부인회충남도지부장 김종선 씨가 지명됐다.

충남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권익 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충청남도 여성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윤아 신임 회장은 “여성 발전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행동하는 충남 여성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와 시군여성단체협의회, 관계 기관과 협력·소통해 단체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3



충남 남부 철도 교통망 구축 '속도'

충청권 광역철도 연내 착공

호남선 고속화 기본계획 수립

충남 남부 지역 철도 교통망 '업그레йд'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연내 첫 삽을 뜬다.

계룡부터 대전 신탄진까지 35.4km 규모로, 2024년까지 2694억 원을 투입해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정거장 12개를 개량하거나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달 초 열린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연내 착공을 목표로 기재부 수요예측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충청권 도시 간 교통불편 해소 ▲지역 및 경부·호남선, 대전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촉진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뒷받침 등을 기대한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호남선(논산-대전 가수원)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구불구불한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에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719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기존 선로를 개량해 29.2km로 단축하고 급곡선 구간은 5개소로 줄이며 철도 건설목은 직선화 및 입체화를 통해 없앤다.

도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논산역에서 서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33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되고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생활개선충남연합회장에 기양순 씨

“지역 농촌 보존하며 발전 선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제15대 한국생활개선충남연합회장에 기양순(사산·사진) 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기 회장은 제29회 충남 농어촌발전을 수상했으며, 읍면 단위 회장을 시작으로 한국생활개선서산시연합회장 및 한국생활개선충남연합회 감사를 역

임했다. 제15대 충남도연합회를 함께 이끌어갈 임원에는 수석부회장에 신용숙(보령) 씨, 부회장에 김양순(흥성) 씨, 감사에 고승현(부여) 씨와 이순영(태안) 씨가 선출됐고 서기는 송은하(공주) 씨, 총무는 진미녀(예산) 씨가 지명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42



임원 임기는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국생활개선충남연합회는 농촌 여성의 지위·권익 향상, 여성 후계 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회원 규모는 9000여 명에 달한다.

기양순 신임 회장은 “여성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자부심을 품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42

도정계시판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안됩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건설업계 및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건설현장 10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11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역제한 제도개선, 신속집행 조정, 관급자재 요청부터 계약까지 처리기간 단축 등이다.

건설업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041-635-5432

농작업 안전 예방 시범사업 확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 관련 5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인 농약 안전관리 기술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은 보령 등 6개 시군에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을 안전리더로 육성해 현장 안전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업인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농약 안전 사용 및 안전 보호구 착용 교육을 통해 농약 노출 감소 등 농약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92

진화 헬기 배치 산불 초동 대처

충남도는 5월 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초



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에 맞춰 입산자 실화, 소각에 의한 산불 등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흥성과 천안, 논산 지역에 헬기 1대씩 배치해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 진화 차량, 등짐펌프, 무전기,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를 정비했다.

아울러 열화상 드론 등 장비를 확충하고 신문·방송·대중교통·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도 진행한다. /산림자원과 041-635-4505

버리던 생강 부산물로 젤리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생강 찌꺼기 후 남은 부산물을 활용한 생강 구미형 젤리를 개발했다.

도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팀은 다양



한 연령층이 부담 없이 생강의 향과 맛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찌꺼기 후 남은 찌꺼기에서 추출한 생강액을 첨가한 생강 구미형 젤리 제품 2종을 개발했다.

생강 찌꺼기는 무기질, 특히 칼슘과 철분 함량이 높고 기능성 성분 함량이 비교적 높아 가공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번에 개발한 젤리는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생강 찌꺼기와 상큼한 레몬 농축액을 첨가해 젤리의 맛을 상승시키면서 건강과 맛을 잡았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24

항생제 내성균 감염 확산 차단

충남도 내에서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항생제 내성균(CRE) 감염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내성균은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속군종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직·간접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오염 기구나 물품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만큼 의료기관 환경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요로나 혈류 등 다른 부위로 유입돼 요로감염, 혈류감염, 상처감염 및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김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확한 정보제공과 환경오염방지를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21

충남도청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화력발전 소재 시도 정책간담회
정부차원 폐지지역 지원책 필요
“지자체 연대해 법 제정 이끌 것”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1월 31일 천안·아산 고속철도(KTX) 역사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론화와 광역자치단체간 연대방안을 모색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1일 보령 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미래산업과 041-635-3464



1인당 모금액 1위...사랑의 온도탑 폐막 충남도는 1월 31일 도청 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개최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62일 간 진행했다. 캠페인 결과 도내 모금액은 195억 800만 원(1월 27일 기준)을 기록했다. 충남은 희망 나눔 캠페인 1인 당 모금액 전국 1위에 올랐다. 2019년부터 5년 연속 이어오고 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중 모은 성금을 활용, 수급자·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46

이달의 우수직원에 김규태 사무관

충남권역 재활병원 착공 이끌어

충남도는 올해 첫 우수직원으로 장애 인복지과 김규태(사진) 사무관을 선정했다.

김 사무관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이후 답보 상태였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6년 만인 지난해 12월 정상화 시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도내 유일의 재활전문병원으로 아산시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 1만 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도는 매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추천받아 공적 심사 후 최종 선발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그동안 중앙부처 심사

자문기관을 직접 섭외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민·자재 변경을 통해 공사비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도내 유일의 재활전문병원으로 아산시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 1만 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도는 매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추천받아 공적 심사 후 최종 선발하고 있다.

/인사담당관 041-635-2132

서해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 개최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충남도가 ‘하늘에서 바라본 서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아름다운 갯벌, 섬, 어촌, 어항, 해안선 등을 담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드론 영상·사진을 발굴하고자 추진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도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도는 드론 영상·사진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10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영상 5편, 사진 15편 등 총 21편을 선정해 총상금 1000만 원 규모로 시상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041-635-480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공모

3월 3일까지 해당 시군 제출

충남도가 오는 3월 3일까지 도내 농업 법인 및 농식품 제조·가공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로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제조·가공 분야 15개소 ▲체험·전시 3개소 ▲농촌융복합산업화 2개소 등 총 3개 분야 20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제조·가공(1·2차) 및 체험·전시(1·3차),

농촌융복합산업화(1·2·3차)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홍보·마케팅 등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자본과 경상비로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보조한다.

공모 신청은 소재지 시군의 사업 담당 부서에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계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촌활력과 041-635-4078

충청남도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충남 권역센터와 원격협진체계 구축

원격협진 협약체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음성, 기본 정보를 실시간 전송·공유하는 원격협진 시스템 운영

전원협진체계 구축

전원협진 협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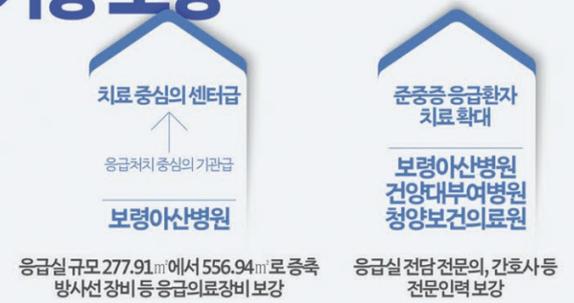


응급실간직통 전화운영

응급환자 치료 접근 중심의 권역별 이송체계 구축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연일 방문객 수를 갱신하며 활기를 찾은 예산시장



백종원 대표가 솔루션을 제공한 신광정육점



선봉국수 가게 앞

‘핫’한 예산시장... “재료 떨어져 못팔아요”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

백종원 고향살리기 연일 화제

[예산] 충남 예산군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공동으로 진행한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출발이 성공적이다.

해당 프로젝트로 진행된 시장창업 점포들이 1월 9일 정식 오픈한 가운데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일주일 만에 방문객 만 명을 돌파했다.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됐던 상가 자리에 정육점, 닭볶음탕, 닭 바비큐, 국수를 메뉴로 하는 음식점 4곳이 새로운 문을 열었고 백종원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으로 최근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다양한 관광객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백 대표가 솔루션을 제공한 5개 점포(신광정육점, 금오바비큐, 선봉국수, 시장닭볶음, 불판 빌려주는 집) 및 신메뉴 등을 개발한 기존 점포 7개소(어서와U, 구구통닭, 또복이네, 대흥상회, 에터칼국수, 시장중국집, 고려떡집)는 연일 방문객 수를 갱신하며 사람이 찾지 않던 시장이 활기를 찾았다.

오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료 소진’으로 영업을 마감하고 있으며 주변의 포장마차를 비롯한 백종원 국밥거리, 국수집 등 주변 원도심 상권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무엇보다 과거 예산시장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구경하고 식사만 했지만,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와 블로거 등 인플

루언서들이 찾아와 개인 방송으로 소개하면서 시장을 홍보가 되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와 이런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 3개 점포의 추가 창업을 준비 중”이라며 “음악 등 불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보강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군 제공

/이해튼 deun127@korea.kr



입춘대길 [홍성]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4월)을 맞아 홍성군 구형면 거북이마을 거북이 마당놀이 전영수(79) 보존회장이 대문에 입춘첩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健陽多慶)’(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을 붙이고 있다.

/홍성군 제공

한옥의 역사·문화적 가치 높인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위해

‘한옥지원사업’ 시범 시행

[서산] 충남 서산시가 한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옥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하는 사업량은 2개 동이며, 1동당 한옥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2023년 1월 6

일) 이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인 한옥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 신청서류를 방문, 등기,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추후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산시 제공

충남도청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흉부 CT로 폐암 조기 발견

공공의료원 칼럼

폐암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 중 2위 이면서, 전체 암 사망자 수 1위인 중요한 암입니다. 2021년 폐암 사망자 수를 보면 암 사망자 5명 중 1명 이상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1만8902명/8만2688명) 최근 기후변화 및 생활 습관의 변화로 폐암의 발병 원인과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등으로 여성의 폐암 발병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는 감각신경이 없어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암의 크기가 커져 주변 흉벽이나, 기관지까지 진행하였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통증, 객혈 등의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처럼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우수한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폐암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는 암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가 폐암 검진 연구 등에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하였고, 만 54세 이상~74세 이하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흡연력은 하루에 피우는 담뭍담 수와 흡연한 기간(년)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갑씩 10년 동안 흡연을 하였을 경우 10갑년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는 단순 흉부 X선 검사보다 폐 속을 정밀하게 검

사하는 방법입니다.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크기 1cm 미만의 작은 결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흉부 X선 촬영으로는 크기 1cm 미만의 작은 결절은 발견하기 어렵고, 심장과 큰 혈관, 뼈 등에 가려진 부위에 발생한 결절도 찾기 어렵습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3~5mm 정도의 작은 결절까지 발견할 수 있고, X선 촬영에서 가려졌던 부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방사선에 대한 우려로 인해 CT 촬영을 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선량 흉부 CT는 일반적 CT 보다 방사선 선량을 크게 줄여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영제 없이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을 때는 평소대로 약을

드시면 되고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사시간은 보통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력이 없더라도 석면이나 라돈 등 폐암 유발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건설 노동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수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폐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주경
서산의료원 영상의학과



천안 시티투어 '빵카달달 코스' 개발

3월 4일부터 빵집·카페서 달달한 여행
각원사, 성성호수공원, 타운홀 등 방문

[천안] 천안시가 시티투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빵카달달 코스'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했다.
'빵카달달 코스'는 빵집과 카페에서 달달한 여행을 즐긴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각원사 청동대좌불을 기점으로 태조산 둘레길을 돌아보고, 유량동 맛집에 이어 성성호수공원에서 빵과 커피 등을 즐기고 타운홀 전망대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범 운영 일정에는 천안시가 운영하는 2023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에

참여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시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점을 반영할 예정이며, 새로운 코스에 대한 홍보 영상도 촬영해 시티투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빵카달달 코스'는 3월 4일부터 시작해 총 60회 주말마다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명소를 걸으며 힐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시티투어 코스에 많은 여행객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빵카달달 코스' 시범 운영 기념사진

이어 "앞으로 천안시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여행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격 운영 농기계 26종 43대 마련 예정

[논산]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2023년 한해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시 기술센터는 1월 31일 센터 내 상 황실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 방향, 농업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다루며 임대사업 효율화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9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가 집중되는 기종 구입과 노후 농기계 교체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사항에 입각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발작물 중심의 농기계 26종 43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심의회 의결 결과를 전했다. /논산시 제공

2023년 1월 22일 시행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 1. 22. 시행)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 (빨간불) 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로열티 없는 사과 생산단지 조성

아리수, 감홍, 썸머킹 3종
생산량 확대, 품종갱신 도모

[청양]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비자들의 변화된 입맛과 소비 경향에 맞는 최고품질의 국내 육성 사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가 선택한 품종은 사과의 왕이라 불리는 '아리수'와 '감홍', 여름 사과 '썸머킹' 등 3종이다. 아리수는 당산 비율(당도 15.9Brix,

적정산도 0.43%)이 적당하고 식감과 맛이 우수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감홍은 사과 특유의 향기가 짙고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 새콤함이 돋보이는 우수 품종이다. 또 썸머킹은 새콤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쓰가루 품종을 대체하는 품종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로열티 절감액을 농가소득으로 돌리고 '청양 사과' 생산량 확대와 품종갱신, 품질 고급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청양군 제공

소규모 개발공사 이행보증금 면제 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대신

[서천] 충남 서천군이 내달 1일부터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시 원상회복을 위해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최초 허가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찾아 이행보증금을 변경·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따라 군은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단독 주택 및 창고 건축은 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 군은 민원인이 이행보증 관련 동의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예산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이중안전장치까지 채울 계획이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창고를 지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천군 제공

첨단 도시안전 스마트 인프라 구축

실종자 얼굴인식 스마트폴 등
연중무휴 빈틈없는 시민 안전

[보령] 충남 보령시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는 2015년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한 이후 CCTV 2712대를 설치해 관리·운영 중이며, 20명의 관제요원이

4조 2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빈틈없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특히 매해 700여 건의 영상을 경찰에 제공해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5대 범죄 3435건에 대한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실종자 얼굴인식 스마트폴, 기존 비상벨의 단점을 보완한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 등 첨단 도시안전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령시 제공



백성 돌보고 국력 회복에 기여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3) 523년 그해, 무령왕 돌아가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무령왕릉 입구에 도착했어요. 앞에 보이는 왕릉은 왼쪽부터 5호분, 6호분, 그리고 그 뒤에 7호분 무령왕릉이 위치해 있어요. 이상하죠.
저 충나미가 왕릉을 설명할 때, 숫자로 설명하고 있으니깐요. 우린 탐정이니 그 정도는 눈치 채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맞아요. 삼국시대 그 많은 왕릉급 무덤 중 주인이 밝혀진 사례는 앞에 보이는 무령왕릉뿐입니다.
무령왕릉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무덤의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어요. 그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사마

왕 즉, 무령왕 62세 되는 계묘년(523) 5월 7일 임진날에 돌아가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었습니. 저희가 무령왕릉을 지켜보는 2023년에서 1500년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령왕 죽은 계묘년 523년이 됩니다.
이제 523년 5월 7일 공주에 있었던 웅진왕도의 풍경을 상상해 볼까요?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탐정이니 무령왕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를 찾아봐야겠네요. 『삼국사기』를 봅시다. '5월 왕이 돌아가시다' 라고 백제본기 무령왕 23년조에 전

하고 있군요. 그보다 앞 페이지를 살펴볼까요.
475년 한성이 함락되면서 개로왕은 물론이고 부인과 왕자들은 모두 고구려군에게 몰살당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문주와 그의 어린 아들 삼근, 곤지와 동성이 모두 비명횡사하였네요. 아마 왕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국가적으로도 비상사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무령왕 즉위 이후 고구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때로는 반격을 가하여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자 창고를 열어 구제하고, 제방을 수리하고, 전국에 놓고먹는 자들을 농사짓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놀라운 속도로 국력을 회복하고 있군요. 더 놀라운 건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해 다시

강국이 되었다[累破句麗 更爲強國]"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무령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네요. 자, 눈을 감으시죠. 다시 523년 5월 웅진왕도입니다. 백성들은 무령왕의 죽음에 통곡을 하고 있네요. 그는 웅진기 재위하였던 5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고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무령왕이 이룩한 업적은 그 아들 성왕이 또 한 차례의 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령왕 서거 1500주년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아시겠죠. 이제부터 조금 자세히 무령왕의 생애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무령왕 동상.



1925년 대전역 전경. 대전역은 일제의 식민지 자원 수탈과 대륙침략 계획에 따라 1905년 서울역과 부산역 사이의 주요역으로 개통됐다. 1904년 경상도 권역의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영등포와 대전사이에 먼저 열차가 운행됐다. 대전역사는 1919년 개축하였고 1920년에는 우리나라 철도 역사 처음으로 지하도가 개통됐다.

사진/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일본인 콧대 꺾은 대표 친일파의 행적

격동의 충남 100년

6) 日帝下の 충남지사 이범익



이범익. 1927년 8월 28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 /국립중앙도서관

1935년 2월 충남지사 부임

일제강점기 조선인 도지사

자동차 번호판 놓고 서열싸움

일본인 운영 백화점 비리 적발

지방채 발행해 하천 제방공사

이범익은 1935년부터 2년동안 충남도지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일화를 뿌린 인물로 유명하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선인으로 도지사를 역임했던 몇 안되는 인물이지만 특히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파 704인에 포함되고, 그가 강원도지사라도 근무했던 춘천에는 그의 친일행위를 단죄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친일파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충남도지사 시절에는 일본인을 골탕먹이는 일로 유명했으니 양면성을 지닌 인물인지도 모른다.

노·일 전쟁 때 일본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되어 친일행동대에 앞장섰고, 결국 춘천군수, 강원도지사 등을 역임한 이범익은 1935년 2월 22일 충남도지사에 부임한다. 부임하는 날부터 사건은 벌어진다. 그 무렵 지금의 KTX 같은 특별열차로 취급받던 아까즈끼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한 이범익은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충남도청 간부들과 일본 거류민들로부터 영접을 받는다. 내무부장 윤태빈, 경찰부장 다가오, 충청도 갑부 김갑순, 그리고 일본 거류민 등, 역 플랫폼에는 환영 인파로 벽적됐다. 특히 경찰 간부

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에 이범익은 못마땅해 했다.

이런 가운데 내무부장 윤태빈이 제일 먼저 신고를 했고 이어서 경찰부장 다가오가 뒤를 이었다. 그런데 또 대전 경찰서장이 앞으로 나서며 거수경례를 했다. 이범익의 지사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려다 말고 ‘웬 경찰이 이렇게 많소? 경찰이 많으면 시민들은 긴장하고 불안해한다’며 경찰 간부들을 제치고 다른 출영 인사들과 악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악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경찰 간부들은 머쓱할 수 밖에 없었다.

한번은 이범익의 지사가 퇴근을 하기 위해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는 현관에서 나갔다. 그런데 마침 경찰부장 승용차도 현관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범익의 지사가 자동차 번호판을 자세히 보니 도지사 차는 ‘충남 관2’로 되어 있고 경찰부장 차는 ‘충남 관1’로 되어있지 않은가. 그러자 이범익의 지사는 자신이 먼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가오 경찰부장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다가오 경찰부장이 그럴 수 없다고 사양하자 이범익의 지사가 말했다. ‘관1호가 먼저 출발해야 관2호가 뒤따르는 것 아닌가?’

다가오 경찰부장이 그때야 눈치를 채고 당황하여 ‘아 죄송합니다. 지사님 차를 관1호로 바꾸고 제 차는 관2호로 하겠습니다’하고 짹짹 때었다.

그러자 이범익의 지사는 ‘그럴 것 없네. 내 차 번호는 0번으로 하계. 0번 번호판이 나올 때까지는 걸어서 출퇴근을 할 테니 그렇게 알게’하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다가오 경찰부장은 더욱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바꾸어 다는 소동을 벌였다. 사실 이렇게 된 것도 일본 경찰부장이 한국인 도지사를 깔봤기 때문이며 또 그 무렵 일본경찰의 콧대가 그렇게 높았던 것이다.

한번은 그의 부인이 남편이 입을 예복(연미복)을 사기 위해 대전에서 유일한 백화점 미나카이를 찾아 갔다. 지금 대전역 앞에 있던 미나카이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현대식 백화점으로서 인기가 높았다. 미나카이 뿐 아니라 대전의 상권은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도지사나 심지어 조선총독에까지도 발언권이 컸다. 이범익의 지사는 이것이 늘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들 콧대를 꺾어 놔야겠다고 버르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부인이 미나카이에 가서 연미복을 찾으니 미나카이 사장이 ‘조선징도 연미복이 필요하느냐’고 비아냥 거렸다. 모욕을 느낀 부인은 곧바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튿날 이범익의 지사는 출근하자마자 다가오 경찰부장을 불렀다. 그리고는 엄숙한 얼굴로 미나카이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다가오 경찰부장은 그의 귀를 의심했다. 대전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더욱이 그 사장이 일본인인데 어떻게 감히



미나카이 백화점 경성본점. 미나카이 백화점은 20세기 초반 일본제국령 조선과 만주, 중국대륙 등에 개점했던 일본제국의 백화점이다. 이범익의 부인이 연미복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했던 미나카이 백화점 대전점의 사진은 남아 있지 않고 경성본점과 부산점의 사진만 남아 있다.

이범익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관료. 1883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1898년 관립한성국어학교에 입학해 일어과를 졸업했다. 러일전쟁 당시 통역을 맡아 일본군을 도왔으며 공을 인정받아 메이지 대학 교외생으로 법학을 공부했다. 조선총독부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방국소속으로 일했고 강원도 춘천군수, 예천군수를 거쳐 조선총독부 사무관이 됐다. 1924년 황해도 내무부장을 거쳐 1929년 강원도지사, 1935년 충남도지사를 지냈다. 그는 중추원 참의로 발탁된 것은 물론,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만주국 고위관료로 임용되어 간도 지역을 담당하는 간도성 성장을 맡았다. 특히 간도특설대를 설치하는 등 항일운동을 탄압하는 활동을 총괄했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비리를 캐리니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가오 경찰부장이 머뭇거리자 이범익의 지사는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지시를 반복하며 ‘본건은 절대 비밀로 하라’고 엄명했다. 그 당시는 경찰관까지 도지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경찰부장이지만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윽고 얼마 안있어 다가오 경찰부장은 미나카이 백화점이 전기회사에 납품하는 전기줄을 감는 면사가 불량품임을 적발하고 이범익의 지사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도지사는 미나카이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전기회사에 변상금으로 700원을 물게 했다. 물론 미나카이 사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로비를 했으나 도지사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마침내 미나카이 사장이 도지사 관사를 방문, 깊은 사과를 했는데 도지사는 ‘여기에 조선징 여자(여자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왕립하십니까?’ 하고 냉정하게 되돌려 보냈다. 물론 미나카이에 대한 영업정지는 이범익의 지사 부인이 ‘조선징’이라고 모욕을 당한 것에 보복이고 개인감정도 있지만 그동안 기가 죽어 있던 한국인들은 통쾌하게 생각하여 환영했다.

현장에 달려와서는 나룻배를 타고는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부여 군수와 직원들이 나룻배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수몰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보아 사람들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곧 바로 구룡평야를 항구적으로 수해로부터 보호할 방조제 공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 그 무렵 논산천 범람도 큰 골칫거리였는데 이범익의 지사는 논산천 제방 공사에 벌였는데 특이한 점은 충남도 최초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사비를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범익의 지사는 1937년 2월 일본이 만주 땅에 세운 간도(間島)의 성장으로 영전돼갔는데 그곳에 있는 조선인 청년들의 징집 등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하다 해방을 맞았다. 일설에는 일본 항복 후 진주한 소련군에 체포돼 중앙 아시아로 유배됐다고도 하고, 해방 후 남한으로 왔다가 반민족행위로 조사를 받다가 6·25 때 북한군에 남북됐다 설도 있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청년 머물고 문화 숨쉬는 섬 만든다”

<새로운 시도로 반올림되는 삼시문화어촌의 활력>

보령 삼시도가 청년이 머물고 문화가 숨쉬는 섬으로 탈바꿈한다. 충남도는 보령 서산 태안 당진 등 4개 시군 9개 어촌지역이 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의 경제 생활환경 개선과 신규 인구 유입 유도 등 어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수부의 2027년까지 전국 어촌 300곳에 3조원을 지원한다. /도정신문팀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일원
- 면적 : 3.78km² · 사업기간 : 2023~2026(4년간)
- 총 사업비 : 297억(국비 141억, 지방비 141억, 자부담 15억)



보령 삼시도항 공모사업 내용

어촌 경제 거점을 위한 기반 구축

핵심시설_ 혁신하는 일터(삼시 어촌 개선)

- 삼시수산 콤플렉스 : 신규소득원 및 판로개척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
- ICT원격의료기반구축 : 기존보건진료소의 기능 확장으로 첨단보건진료 기반 마련
- 함께삼시다 거버넌스 : 소규모 공동체 구성을 위한 어촌상생 커뮤니티
- 삼시종합정보플랫폼 : 주거환경 및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정착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 수산물, 해양관광 등 어촌자원을 활용한 크리에이터 육성

부족함없는 삶의 질 확보

주요시설_ 지속하는 삶터(삼시 생활 구축)

- 청년주거단지 : 귀촌인 정주지속 제고를 위한 임대주택단지 조성

상생가능한 투자가치 확보

지원시설_ 함께하는 삶터(삼시 명소 창출)

- 모빌리티 도로정비 : 삼시해상케이블카 관광활성을 위한 e모빌리티 기반 마련
- 솔뫽해안공원 : 케이블카 이용객을 위한 새로운 친수공간 조성
- 국민여가 캠핑장 : 매력적인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캠핑공간 및 숲속공연장 조성
- 해양레저 체험장 : 해양레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



충남 9개 어촌지역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

구분	선정	선정 대상항	사업비(억원)	비고
유형	9개소		893	
유형1	보령시	삼시도항	297	지방어항
	보령시	송학항	96	소규모항
유형2	서산시	왕산항+중앙항	100	어촌정주항
	태안군	천리포항	100	지방어항
	태안군	의점포항	100	어촌정주항
유형3	보령시	죽도항	50	어촌정주항
	서산시	웅도항	50	어촌정주항
	당진시	마섬항	50	어촌정주항
	태안군	연포항	50	어촌정주항



- 1 재정사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 유치 등 어촌의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의 전환
- 2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
- 3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등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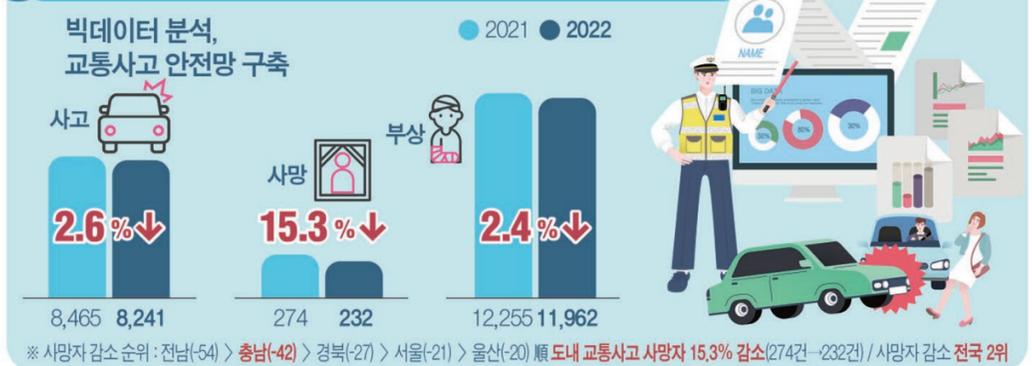
2022년도 「충청남도자치경찰」 성과

- 도민 체감 주요 안전지표 크게 개선 -

01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02 교통사고 피해 대폭 감소



03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 대폭 감소



Q&A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장소	2021	2022	착용 의무 여부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지하철, 기차, 버스	○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	○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	○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직장	○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카페, 식당	○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 의무 장소·시설 범위 세부내용은 관할 지자체 행정명령 참조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냐, 유의사항이 있나요?

A.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23.1.30.) 되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일자리 정보

※문의 -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 041-330-4972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주)인텍시스템(본사)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3명	041-551-2662	연 3,000만원 ~	논산	(주)바이오넬	경리 사무원	1명	041-742-9651	월 250만원 ~
천안	성우일렉스(주)(본사)	자재·구매 사무원	1명	041-562-0482	연 3,800만원 ~	보령	주식회사이엔에프앤씨	배송 납품 운전원	1명	031-356-0464	월 250만원 ~
천안	신진에스엠(본사)	금속 공작기계 조작용	2명	041-554-7885	월 300만원 ~	보령	에이프로젠아이앤씨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3명	041-931-9376	월 220만원 ~
천안	(주)성심산업(본사)	토목시공 기술자	2명	041-542-3013	연 5,000만원 ~	보령	은포산업(주)	견인차,유조차,구난차 등 특수차 운전원	2명	041-933-5859	월 400만원 ~
아산	두성산업(본사)	금속절곡기 조작용	2명	041-546-2570	월 300만원 ~	보령	미래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 기술자	1명	041-933-1915	연 3,500만원 ~
아산	성진산업(주)(본사)	건설자재 시험원	2명	041-581-0114	연 4,500만원 ~	계룡	계룡호센터	시설 요양보호사	1명	042-551-5629	월 233만원 ~
아산	한신테크(본사)	생산·품질 사무원	1명	041-544-1955	월 230만원 ~	계룡	진모터스	자동차 차체 판금 도장 정비원	1명	042-542-4972	월 350만원 ~
아산	(주)삼복(본사)	토목시공 기술자	2명	041-545-3006	연 3,500만원 ~	계룡	효성요양원	시설 요양보호사	2명	042-841-4800	월 230만원 ~
당진	금암농장(본사)	가축 사육 종사원	1명	041-353-4247	월 230만원 ~	계룡	주식회사계백한우	정육원	2명	032-715-7328	월 210만원 ~
당진	대주중공업(주)(본사)	산업 안전원 및 위험물 관리원	1명	070-7015-1446	연 4,500만원 ~	홍성	농업법인제일식품	배송 납품 운전원	1명	041-634-2423	연 2900만원 ~
당진	(주)코리아피팅(본사)	건설자재 영업원	2명	041-358-4545	연 3,600만원 ~	홍성	(주)대한정보통신	영상 음향기기 등 전기 기기 설치 수리원	1명	041-635-0055	연 2500만원 ~
당진	효성펄프판매(주)(본사)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1명	041-362-2500	연 2,700만원 ~	예산	오성화학공업(주)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용	2명	041-337-3535	연 3,000만원 ~
서산	효드림방문요양센터(본사)	재가 요양보호사	1명	041-665-2266	시급 16,000원 ~	예산	(주)영신F&S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2명	041-337-7993	연 3,500만원 ~
서산	홍일호스(본사)	배송·납품 운전원(납품영업 포함)	2명	041-666-0136	연 3,200만원 ~	태안	어송환경산업주식회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966-1957	월 250만원 ~
서산	주식회사더맨(서산)	건물 보수원 및 영선원	1명	041-662-9710	월 330만원 ~	태안	일진레저주식회사	기타 조리사	1명	041-670-8831	연 3,500만원 ~
서산	(주)대흥정공(본사)	자재·구매 사무원(일반 사업체)	1명	041-429-0021	연 3,200만원 ~	서천	(주)삼일이노텍 서해공장	배송 납품 운전원	1명	041-957-9007	연 3,400만원 ~
공주	(주)베스트산업	중대형 화물차 운전원	3명	041-856-2743	월 320만원 ~	서천	(주)성현테크	공장 전기관리원	1명	041-955-1559	월 210만원 ~
공주	(주)송원산업개발	토목시공 기술자	1명	041-854-2225	월 350만원 ~	부여	의료법인연화의료재단	일반 간호사	1명	041-833-7200	연 3,800만원 ~
공주	삼정가스화학(주)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용	1명	041-852-0966	연 3,200만원 ~	부여	한마음영농조합법인	경리 사무원	1명	041-837-9494	월 201만원 ~
공주	(주)에니켄텍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858-0076	연 3,000만원 ~	금산	항림원	아동 생활지도원	2명	041-752-5219	월 210만원 ~
논산	(주)우리황토	배송 납품 운전원	1명	041-734-7601	월 250만원 ~	금산	주식회사세원	임업 및 산림 연구원 및 기술자	1명	041-942-5321	월 250만원 ~
논산	의료법인백제병원	병원행정 사무원	1명	041-730-8837	연 3,080만원 ~	청양	삼우컴퍼니주식회사	제조 생산 관리자	2명	053-814-9447	월 2,600만원 ~
논산	주식회사 휴엠앤씨	제조 단순 종사원	4명	070-7494-2402	월 300만원 ~	청양	(주)재유	제조 단순 종사원	5명	042-822-7124	월 250만원 ~



2023.2 문화달력

자료제공/충남문화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1	2	3	4
---	---	---	---

4 가족족무지컬 '출동! 슈퍼왕스-스노우페스티벌'

기간: 2023.2.4.~5.
시간: 11/14/16시
장소: 충남도청 문예회관

5	6	7	8	9	10	11
---	---	---	---	---	----	----

5 다섯가지의 감정들

다섯가지의 감정들
기간: 2023-01-17~02-05
장소: 충남도서관 3층 다목적실

EAT PLAY LOVE - 테리보더 사진전

기간: 2023-02-10 ~ 2023-04-09
장소: 연산문화창고 4동 다목적홀

12	13	14	15	16	17	18
----	----	----	----	----	----	----

12 도전! 구석기 생존 캠프

2023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
기간: 2023. 2. 11.(토)/2. 12.(일)
장소: 석장리박물관 내 체험학습관, 전시관, 야외유적
요금: 10,000원(중식비포함)
문의: 041-840-8938, 8932

16 "마이클리, 박기영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흥성 음악회"

시간: 19시 30분
요금: R석 2만원, S석 1만원
장소: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041-634-0021

18 조항조&진성 <양상블콘서트>-천안

시간: 14/18시
연령: 만7세 이상
요금: VIP석-132,000원 /R석-121,000원 /S석-99,000원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1588-0766

19	20	21	22	23	24	25
----	----	----	----	----	----	----

26	27	28
----	----	----

26 달이 참 밝습니다 -이동연 초대 개인전

기간: 2023-01-04 ~ 02-26
시간: 10:00 ~
요금: 무료
장소: 복합문화공간 모나무르 갤러리 더 퍼플 4관
문의: 041-582-1004

27 이영노 그리다

•2023 공주문화재단 기획전 <에코이스트>
기간: 2022.01.03 ~ 2022.02.05
시간: 10:00 ~ 18:00(월, 설 연휴(1.21~24) 휴관)
장소: 아트센터 고매(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문의: 공주문화재단 041-852-6038

•2022 소장품 상설전 이영노, 그리다
기간: 2022. 12. 06. ~ 2023. 03. 05.
시간: 10:00 ~ 18:00(월, 설 연휴(1.21~24) 휴관)
장소: 이영노의집(충남홍성군 홍북읍 이영노로 61-7)
문의: 041-630-9232

•에콜드 이미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기간: 2022. 10. 24. ~ 2023. 03. 28.
시간: 10:00 ~ 18:00(월, 설 연휴(1.21~24) 휴관)
장소: 당진 아미미술관(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문의: 041-353-1555

•2022아미마켓 -상상력에게
기간: 2022. 11. 28. ~ 2023. 03. 28.
시간: 10:00 ~ 18:00(월, 설 연휴(1.21~24) 휴관)
장소: 당진 아미미술관(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문의: 041-353-1555

느림의 여정이 있는 연산역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그리운 시간이 머무는 간이역. 한 때는 학생들의 통학과 장사하는 상인들로 붐비던 연산역이 한적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지금, 종이에 손글씨로 써낸 자신의 편지를 받는 느낌은 어떨까요.

연산역은 열차가 하루 12번 정차하고 백여 대의 열차가 통과하는 역입니다. 조용한 철로를 달리는 열차 소리가 역에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어느새 아련하게 사라집니다.

아담한 역사 안에는 '타임업서' 우체통이 편지를 기다립니다. 지금 쓴 편지가 1년 후, 혹은 3년 후 나에게 다시 돌아와 그때 쓴 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지금, 종이에 손글씨로 써낸 자신의 편지를 받는 느낌은 어떨까요.

철도문화 체험장의 열차에는 1980년대 철도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한 '토마스'와 친구들의 캐릭터가 친근한 얼굴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객차는 코로나로 인해 1~2호차 두 곳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예체험관 옆에는 논산의 딸기 이미지를 활용한 의자가 놓였습니다. 기념사진으로 남겨도 좋을 배경입니다.



연산역

※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민리포터 황토



사서들의 서재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루크 버거스 /토네이도/2022>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원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잠자는 순간에도 꿈속에서 원하는 게 있다. 하지만 그것을 왜 원하게 됐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스탠퍼드대 교수였던 르네 지라르의 모방 이론에 기반해 인간의 모든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겉

숨은 욕망을 찾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힘

으른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방 욕망'의 모습과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의 욕망은 모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다른 사람과 모방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방'은 인간의 강력한 본능으로, 벗어나거나 극복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며, 이를 인지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구별된다고 말한다. 후자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끝내 찾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갈등과 경쟁의 사이클에 갇혀 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왜 서로를 모방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준다. '왜 원하는가'를 이해하는 일만큼 가장 강력한 지적 도구는 없다고 강조하는 버거스는 과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고찰을 통해 인간 욕망 메커니즘을 안내한다. 사람들은

시간이나 공간, 돈, 지위 등에서 우리와 충분한 거리를 두는 사람들과는 경쟁을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무언의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스티브 잡스의 모델이 된 그의 동기생 로버트 프랜들리드, 트랙터 제조업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슈퍼카를 만든 람보르기니와 그의 욕망에 불을 지핀 페라리 등을 통해 욕망의 원리를 설명한다.

저자는 욕망을 모방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얇은 욕망'과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 잘 변화하지 않는 '두터운 욕망'으로 나누며, 두터운 욕망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값싼 모방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박광일

언택트 체험키트 개발로 위기탈출 “청년농부와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상”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아나농 대표 김민솔씨

청양 칠갑산 기슭에 귀농, 전통장류 생산

충남 최고 청정지역 칠갑산 자락인 장평면 락지리의 한적한 산기슭엔 청년농부 김민솔(31) 씨의 꿈이 가득 담긴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청정지역을 골라 귀농한 어머니를 따라 청양으로 내려온 김씨는 어찌나 머로 어머니의 고추장 된장 등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다 2016년 직접 전통장류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나농’(아름다운 나라의

농부)이라는 예쁜 브랜드와 로고를 직접 만들고 제품 용기에서부터 스티커, 디자인 등을 거쳐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장류를 계승한 어머니의 손맛에 소비자 맞춤형 판매전략을 세운 김씨의 도전은 창업 6년째인 지난해 2억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본래도에 진입한 것으로 자평한다.

김씨는 기본에 충실한 장을 고집한다. 요즘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등이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각종 첨가물 등을 넣는 것과 달리 순수한 콩과 고추, 찹쌀 등 원재료만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예전 ‘엄마가 해주던 바로 그 맛’으로 승부한다.

재료도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한 것을 시중 가격보다 다소 높게 전량 구매해 장을 만들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하면 제조업체 비용 부담은 커지지만,



김민솔 아나농 대표가 공장 옆 장독대에서 메주의 숙성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위의 청년농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상호소통을 통해 전통 장 생산에 적합한 품종과 품질의 콩을 확보할 수 있다”고 큰 그림을 그린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돼 매출이 급감했을 때 김씨는 ‘내가 만드는 전통 고추장’이라는 체험키트를 출시해 매출을 회복했고 지난해 마케팅 경진대회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을 받는 등 전회회복의 계기가 됐다.

김씨는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져 생각해 낸 게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상품이었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

받아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해 재기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체험키트는 누구나 쉽게 전통 고추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로 영상과 재료만으로 아이나 어른 모두 흥미를 갖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씨는 “체험키트에 사용하는 원물은 청년농업인들의 생산하고 농한기엔 직접 학교 현장에 나가 체험키트로 강의해 부수입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농촌 창업농이 여기를 활용해 아이들을 만나 부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고 청년



농업인들의 상생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체험 분야 새 상품을 개발하고 함께할 지역 청년 농업인 강사 양성과 체험용 농촌학습장 운영도 구상 중이다.

현재 아나농 수익 구조는 학교 납품이 30%, 온라인 판매 및 로컬푸드 20%, 온라인 판매 50%로 다변화돼 있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젠 이모들까지 합류해 전통 장맛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김씨는 장기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들깨와 콩을 재배하고 농업기술 향상을 통한 경작효율화로 소득안정을 꾀하고 생산-제품가공-체험 판매를 연계하는 등 장기 경영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주말이면 함께 일하는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내포신도시로 와서 신나게 놀고 간다는 평범한 젊은이기도 한 김씨는 “청년들이 모여들어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춰 봉사하며 어울려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우리 고유의 전통장 맛을 많이 많이 사랑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도정신문팀



“이젠 홍성에서 한라봉·천혜향 맛 보세요”

갈산서 귤나무 키우는 이병완 씨
200여 그루 황금향·천혜향 가득

[홍성] 갈산면 동산리 당산농원에는 노랗게 익은 한라봉을 비롯한 다양한 귤이 가득하다.

흙사 제주도의 밭감 밭을 옮겨놓은 듯하다. 당산농원 이병완(71·사진) 대표는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좋아했다. 2019년 탕자나무에 귤나무 줄기를 접목시켰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귤 품종을 찾아 접목을 해서 나무를 늘렸다. 3~4년 동안 정성껏 가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의 농원에는 가지



마다 휘어질 정도로 많은 귤이 달렸다. 250평 규모의 이중하우스 안에는 한라봉을 비롯해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 금귤, 하귤, 진지향, 카라향 등 다양하다. 껍질은 아나라 오렌지와 레몬, 구아바, 바나나도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다 보니 친지들, 이웃들과 나눠먹고 있다. 농약을 최소화하고 EM수와 발효제를 사용한다.

이 대표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닌, 즐거움을 위해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꿈은 꽃과 나무, 동물이 한데 어우러진 체험 농원을 만드는 것이다. 귤나무 재배 방법을 배우고 싶거나, 귤 따기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병완(010-2023-6495) 대표에게 연락하면 된다.

/홍성신문 제공

다빈치 건강놀이심리협동조합 최익희 대표

7명 조합원과 교육·상담

전문분야 전공 살려 재능기부

[당진] 다빈치 건강놀이심리협동조합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적기업으로, 2018년 설립됐다. 당시 최익희(사진) 대표 등 8명의 조합원은 교육자, 상담가로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누군가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서비스 제공에 뜻을 같이했다.

조합명은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에서 따왔다. 우리 주위에는 본



인·가정·사회의 틀에서 존재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는 천재성을 지닌 사람이 있어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고유성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최 대표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유치원에서 학부모 상담도 맡았다. 퇴직하고 나의 재능을 펼치고 싶다고

생각했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빈치 마을학교,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대표는 “다빈치 마을학교를 열어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여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펼치는 등 다양하게 쓰임받는 협동조합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진신문 제공

김난주 시인 치유시집 ‘나도 자연인이고 싶다’ 출간

첫 치유시집 ‘상처와 무늬’에 이어 2년 만에 두 번째 시집

[태안] 김난주(사진) 시인이 치유시집 ‘나도 자연인이고 싶다’를 펴냈다.



생의 밑바닥에서 주저앉지 않고 산과 바다, 섬을 찾아 다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며 인간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연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책에 담겼다.

첫 시유시집인 ‘상처와 무늬’를 내 김난주 시인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에 소개된 자연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빛어 냈다.

김난주 시인은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연인 60인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시집을 통해 계절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맛난 음식, 자연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우리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 지혜와 감동을 선사한다.

독자들이 쉽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각 시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다루는 제목을



수록했다. 왼편에는 시를, 오른편 여백에는 노트와 영상 속 한 페이지를 수채화로 표현함으로써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 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15편씩 총 60편의 시로 엮여내 자연인들의 사계절을 한 권의 시집 속에서 엿볼 수 있다.

김난주 시인은 “많은 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문학과 예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누림은 물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시 치료, 치유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그리기 등 표현예술치료 활동 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간태안신문 제공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고향사랑기부제

내포칼럼



홍승지
충남대학교 교수

필자는 최근에 충남지역의 농업인구 고령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 농업인구 상위 읍면동의 교육, 학원, 의료, 교통, 문화 등 생활편의 시설 접근성을 살펴본 적이 있다. 예상대로 상위 10개 지역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읍이나 동이었으며,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생활편의 시설 접근성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 농업인은 지역 농산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 주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원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을 희생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의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패는 국민관심과 참여도 지자체 답례품 발굴 적극적인 지원 필요



이 제도는 2008년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제도 시행 원년인 2008년 기부액은 81억 4천만 엔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8천 302억 엔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여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 등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 제도가 초기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는데, 일례로 2008년 모금액 1위는 도쿄, 4위는 오사카가 차지하는 등 소멸하는 지방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간 경쟁으로 재미를 주는

지역의 특산물이 답례품으로 등장하면서 일본인의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자연스럽게 ‘고향세’ 홍보로 이어져 더 많은 일본인들이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면서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 지자체들도 답례품이 기부 유치에 큰

공감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답례품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도 차원에서도 도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답례품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요소로 답례품 발굴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기부금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다. 촉박한 준비 기간으로 인해 현재는 답례품 쪽에만 관심이 너무 쏠려 있는 듯하다. 기부자 입장에서 답례품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관련 전문가의 주장처럼 고향과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사업 등을 제시하고 기부를 이끌어내는 일본식 크라우드 펀딩형 기부 등도 두루 살펴야만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교육·육아, 문화, 마을조성 등 지역 내 생활편의 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고향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기부자에게 사업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기획 등에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도시민과 지방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지방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원년부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함으로써 이 제도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 균형 발전이 답이다”

출입기자 칼럼



조훈희
중도일보
내포본부 기자

축제는 또 어떨까. 작년에 진행한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국제 행사도 인기를 끌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인기로 대전에서 계룡을 가는 국도가 꽉 막히는가 하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엔 135만 4199명의 관광객이 보령을 찾아 목표치였던 120만 명보다 초과 달성하는 기록도 보여줬다.

아름답고 정겨움이 가득했지만, 시군을 돌면서 느꼈던 것 중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의료서비스였다. 특정 시·군에선 큰 병원을 가려면 차로 한참을 이동해야 했고, 아이가 아픈데 아침부터 줄을 서야만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면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또 청년이 없는 점도 아쉬웠다. 청년 소멸은 결과적으로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해소로 지역을 살리는 결정적인 열쇠는 결국 청년들인데 말이다.

다행인 건 민선 8기가 올해 성과를 보여주는 한 해로 내세우면서 기존의 아쉬운 충남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 시스템 측면에선 올해 서남부권 응급 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기관급 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고, 또 협약 등을 통한 이

송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의료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포 종합병원, 아산 경찰병원 등 도민을 치료해줄 굵직한 병원들도 속속 생겨난다.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인프라와 역량강화 사업은 물론, 청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도록 ICT 융복합 농어업 기반을 구축한다고 한다.

충남도가 대응하는 그 끝엔 ‘지역 균형’이 맞물려야 한다. 도 전체 인구 212만 명 중 46.7%가 천안·아산 지역에 몰려있고, 당진과 서산 등을 포함하면 해당 지역에 충남 전체 인구의 62.9%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충남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등 6개 시군은 정주기피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년 넘게 충남을 돌아보면서 충남도민의 넉넉한 인품과 충남 곳곳의 멋스러움은 충분히 느꼈다. 충남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면서 도민들이 이 곳을 지키기 위해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확립하는 등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충남의 미래는 15개 시군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민선 8기 올해 성과엔 지역 균형 발전이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전 토박이로만 살다가 발령을 받은 충남. 집과 떨어져 울면서 왔다가 집으로 가기 싫어서 울면서 간다는 말이 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지 실감할 정도로 정겨웠다. 대전보다 더 늘어지는 충남 사투리가 섞인 대화를 할 때면 푸근함을 느끼곤 했다.

특히 15개 시군을 돌 때는 그 느낌이 더 좋았다. 만나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질 정도로 배려하는 따뜻한 충남 인심을 봤다.

사람만 좋았을까. 자연도 멋드러진다. 생태관광 기사를 쓰면서 충남 내륙과 해안의 관광 명소를 돌아볼 땐 ‘예쁘다’는 말이 연신 나왔다. 예산 황새공원이나 공주 계룡산, 논산 대둔산처럼 내륙지역 자연 명소는 눈부셨고, 태안 해안사구, 서천 갈대밭과 같은 해안권 명소도 충남만의 멋스러움을 뽐냈다.

연변에서 온 이모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19)



소중애 동화작가

1993년. 횃집에서 연변에서 온 아줌마를 만났다. 우리는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다. 이모는 인기가 많았다. 낮은 억양과 간간히 튀어 나오는 알 수 없는 연변 말이 재미있었다.

“나, 정서파동이 생겼어요.”
신경질 난다는 말이었다.
“맞네. 정서에 파동이 생겼으니 신경질 맞네.”

우리는 웃었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까닭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 남편은 지식 분자가 아니라 경제 골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상업 일꾼일을 하는데 로임이 작아요. 그래서 왔지요.”

우리는 아들과 남편을 연변에 두고와 고생하는 모습이 딱해서 팀도 자주 챙겨 줬다.

시간이 흐르자 어수룩하기만 하던 이모는 변해 갔다. 여자 손님들 옷을 만지작거리며 얼마짜리냐, 어디가면 이렇게 멋진 옷을 살 수 있으나 물론 했다. 머리로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점점 화려하게 바뀌었다.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연변 노래보다 우

리 나라 노래를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익혔다.

이모는 우리들보다 팀을 많이 주는 사장님들 방으로 가서 서빙하기를 좋아했다. 이모가 들어간 방에서는 노래와 웃음 소리가 자주 들렸다.

안타깝고 마음이 조마조마해 졌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변에서 온 이모] 장편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주인공 차영표는 횃집 외동딸이고 연변에서 온 이모는 횃집 종업원이었다. 차영표와 이모가 한방을 쓰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차영표가 아빠 금고에 손을 대는 것을 듣고는 비밀을 지켜 주는 대신 연변 이모를 도와주는 처지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영표는 순박한 이모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갔다. 차영표는 이모와 함께 지내면서 점점 순화되는데 반대로 연변 이모는 점점 사치스러워 지고 돈 되는 일에 스스로 없애진다. 결국엔 모아 두었던 돈을 이자 받고 빌려 주었다가 날리는 사고가 일어난다.

[연변에서 온 이모]가 출판될 즈음 동남아에서 많은 인력이 우리나라 일터로 들어왔다. 국제 결혼도 많아져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다.

그들을 소재로 한 책도 많이 나왔다. 어떤 평론가 말에 의하면 그들을 소재로 한 글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연변에서 온 이모]였다고 한다.

궁금하다. 내가 진짜로 만났던 연변에서 온 이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한목소리

수입의존도 증가 및 식량안보 중요성 증대
취약계층 불안정한 먹거리 사회문제 부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 머큐어엠배서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가공식품, 정크푸드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6일 울산 머큐어엠배서더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조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 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조례안 예고

“교육청 누리집, 운영 및 관리 철저”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신규 누리집을 구축할 때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기능이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 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는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 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명시했다.

구 의원은 “인터넷 누리집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인터넷 누리집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리적 위기학생 심리치료 지원



심리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신종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농어촌 인력 해소”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정·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정의를 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담도록 명시했다.

또 고용·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산업재해보험 지원, 작업장 이동 지원,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관련기관 유치로 국방메카 도약”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남에 국방관련기관의 이전·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충남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충청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오인환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방관련 교육·훈련기관, 의료·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으로 이전시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능인 발전 및 직능간 융합 지원



충남도의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직능인’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재정 효율적 운용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를 마련에 나섰다.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진 간담회 16일 도청 외부인사접견실에서 열린 충청남도의회 의원진 간담회에서 김태홍 지사와 신재원 의정회 회장 등 5명의 임원들은 의정회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김명숙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2일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남은 2016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 활성화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충남행복교육지



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추진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 방향성과 활성화 정책을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안해 보자”고 말했다.



“인구소멸,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로 해소”



김명숙 의원(청양)



전익현 의원(서천)

동행

인구소멸 지역,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해 충남 15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9개 시군(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으로, 지난 3년간(2019~2021) 도내 인구 7025명이 줄었다. 공주시 유구읍 전체 인구가 증발한 셈이다. 특히 인구 소멸지역으로 꼽히는 청양은 지난해 말 3만266명으로 2만명 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서천은 4만9964명으로 5만명 선이 붕괴됐다.

-“충남도 212만 3037명의 인구 중 천안, 아산 등 북부권이 133만 6764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나 공주, 논산, 금산 등 남부권은 40만 2364명으로 19%에 불과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은 3만 266명(1.4%)이다. 자연적 인구 감소에 지역·산업간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별 인구 편차가 더욱 커졌다. 양극화 해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책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나 인구가 많은 북부권에 예산이 집중투자됐다. 남부권에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물론 경제적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베이밸리 메가시티사업처럼 남부권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청양군을 비롯한 남부권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농업농촌과 산림환경자원 중심인 남부권은 청양의 구기자, 산야초 등을 자원으로 하는 의약과 헬스바이오산업, 칠갑산·대둔산·계룡산 국립공원, 금강 주변의 다양한 자연생태 환경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미래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 공주, 부여를 비롯한 남부권 전 지역이 해당하는 백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제조,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발전정책을 특별 육성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충남의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남부권에 대한 농림분야도 다른 지역보다 70~80% 향상된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진정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청양군 같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도에 요구할 것이다. 인구가 작아 산업이 어렵다고 정책에서 소외당하면 안 된다. 남부권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충남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농림,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가 경제만으로 살아가기 어렵듯이 인구정책만으로 인구소멸을 막기는 쉽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고 활발한 충남도가 완성돼 갈 것이다.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충남의 고른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와 원인을 들자면

-“서천군의 경우 현재 총인구 4만 9964명으로, 작년 10월 5만 선이 무너졌다. 13개 읍면에 65세 이상 노인이 39%가 해당하며, 이 중 8개 읍면 노령 인구가 50%를 웃돌 정도로 심각한 초초고령화 지역이다. 특히 서천은 과거부터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정주 여건 미흡 등 사회적 요인으로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다. 거기에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까지 더해져 인구 5만 선이 무너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실제로 작년 사망자는 944명이지만 출생자는 136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 인구급감은 당연한 상황이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중단기적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집중 지원강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서천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후계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후계농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지역을 떠나버린다. 중단기적으로는 귀농·귀촌·귀어인들에 대한 지원강화,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병원 이용률이 높는데, 의료 시스템 붕괴로 소아·청소년과는커녕 응급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지 않는다면 작은 농어촌지역에 머무르려 하는 젊은 층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열악한 교육환경 대폭 개선으로 젊은 층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활동해 갈 것이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이 도계 인접 지역이다 보니, 서천군은 군산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꽤 많다. 일자리 부족,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교육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록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실제로 서천군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남부유아 체험교육원이 준공됐고, 청소년을 위한 미래교육지원센터도 설립되기 시작하는 등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낙후된 지역 인식을 개선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2023.1.1 시행

내 고향 추남을 살리는 이유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주민 복지 사업 시행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